

新資料『擲柶頌』紹介

尹 榮 玉

《擲柶頌》은 율노래이다. 율놀이(柶戲)는 우리 나라 大衆娛樂의 한 가지로 國俗이라 하여 坊坊曲曲에 퍼져서 男女老少 누구나 즐길 수 있는 由緒와 傳統이 깊은 遊戲인데, 特히 正初놀이에 많이 愛用되고 있다.

《京都雜志》에는 〈柶戲〉에 대해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붉은 싸리나무 두 토막을 쪼개어 네 쪽으로 만든다. 길이는 세 치 가량, 혹은 작게는 반쪽의 둥만큼 만들기도 한다. 이것을 던지는 것을 柶戲라 한다. 네 개가 모두 엎어진 것을 모, 네 개가 모두 잦혀진 것을 윷, 세 개가 엎어지고 하나가 잦혀진 것을 도, 두 개가 엎어지고 두 개가 잦혀진 것을 개, 하나가 엎어지고 세 개가 잦혀진 것을 걸이라 한다. 그리고 말판에 29 개의 점을 찍고 두 사람이 상대하여 던지는데 각각 네 필의 말을 쓴다. 도는 한 점을 가고, 개는 두 점을 가고, 걸은 세 점을 가고, 윷은 네 점을 가며, 모는 다섯 점을 간다. 말판에는 도는 길과 지름길이 있고, 말에는 느린 것과 빠른 것이 있어 내기를 결정한다. 설날에 이 놀이가 가장 성하다. (中略)

세속에는 설날에 또 윷을 던져 새해의 길흉을 점친다. 대개 세 번을 던져 찍을 짓는데 64패로써 한다. 요사(繇辭)가 있다.

그러나 〈율노래〉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安東地方에 전해지던 《擲柶頌》을 얻게 되어 그 資料를 紹介하여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資料는 安東 權門의 權寧得翁이 發見해 原本대로 筆寫하여 愛唱해 오다가 1981年 3월에 權翁이 他界하자 그 따님 權蕭子女史가 아버님의 手澤이 스며 있는 이 資料를 學界에 내놓아 研究에 보탬이 되고자 筆者에게 提供했던 것이다.

權寧得翁은 1908年 安東出生으로 日帝治下에서 滿洲로 건너가 獨立運動에 加擔하여 活動하다가 日警에 逮捕되어 淸津監獄에서 獄苦를 치르기도 했고, 일찌기 우리의 것에 愛着을 갖고 探究하고자 白頭山을 무려 일곱 차례나 올

爲我하고	衆愛하신	楊墨道를	道라하라
仁義하고	禮智하신	孔孟道를	道라하라
春日이	方暮하니	草中에	牛羊도야
往事가	蒼茫하니	玉窓에	螢影도야
綠水秦京道는	景致도	좋거니와	
知是長安道는	繁榮할때	더욱좋아	
去年寒食	洛陽道는	孤客의	愁心이오
關塞極天	惟鳥道는	山谷도	深遠하다
於皇大道	當天心은	聖主表情	的實하고
長安大道	蓮葉斜는	八街九陌	게아니냐
禹舜이	繼政하사	崇山에	放驪兜야
聖王이	設衆하사	瑤池에	獻碧桃야
欲報秦讐	張子房은	燒絕殘道	하단말가
聞一知十	顏淵이는	安貧樂道	하단말가
桂水에	舟楫없어	南渡를	바깥소냐
河水에	無水하니	光武가	已渡하고
褒道の	壯한功은	淮西를	悉平하고
白道の	孝道로도	終身無子	하단말가
西城國	너른들에	極樂世界	바라보니
阿彌陀佛	계신곳에	兜率天宮	明廟하고
觀音菩薩	계신곳에	蓮花峰이	秀麗하다
齊桓晉文	霸道런가	文武周公	王道런가
孔夫子的	聖道런가	孟夫子的	賢道런가
一葉片舟	多事한대	武陵紅桃	찾단말가
閨中에	望夫情은	勞心이	切切하고
豪傑의	노던곳에	醉興이	陶陶하다
徐生의	錄圖書는	蹤跡이	杳茫하고
孔明의	荊益圖는	經綸이	萬端이라
忽到窓前	疑는君은	絕代佳人	찾아가
桃花流水	杳然去는	別有天地	여기로다
聞道雲安	趣味春은	美味香醪	좋거니와
聞道河陽	近乘勝은	報捷蓬萊	더욱좋다
萬物無非	春意思는	萬化方暢	좋거니와
一門都是	暖生涯는	花爛春場	더욱좋다
氷上에	求鯉하니	王祥의	孝道런가

라 踏査하였으며, 金剛山等 國內 坊坊曲曲을 巡禮하다시피 하였다. 그래서 우리 國史에 대한 資料를 蒐集하여 著述에 着手하였으나 그것을 끝맺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됨을 한없이 서운해 하였다는 것이 그 따님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資料를 提供해 준 權肅子女史에게 感謝하며, 權寧得翁의 冥福을 빈다.

權翁은 이 《擲杞頌》에 自作의 《緒言》을 다음과 같이 붙여 놓았다.

擲杞頌緒言

擲杞는 口傳에 依하면 檀君中葉時代부터 遊戲의 한가지로 傳來하였다. (中國에서는 老子의 創按인 楊蒲라 한다.)

檀木을 쪼개어 四者를 만들어 던져 四者의 俯仰을 따라 檀朝五伽官名을 붙여 五行의 이름을 지은 것이라 하는데, 迨近 四千年來 遺俗이라, 八道江山 어느 곳에 가도 웃놀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 믿는다.

擲杞頌은 嶺南 安東地方에 自古로 流行하여, 男女老少의 正初 웃놀이에 크게 興致를 돋는 노래가 되었으며, 웃송 原文은 著作者 不明으로 安東 權・金 兩先世가 다 通用함에 따라서 頒布된 鄉謠라 至今은 口誦은 姑捨하고 原文조차 章本이 없어져서 웃송이 湮沒되어 擲杞遊興이 寂寞하던 中 倅이 死藏된 章本一冊을 求하여 僅僅히 保存한 此本の 壽傳을 圖謀하여 原本대로 印布하였으니 이것이 遊興에 一助분만 아니라 우리 나라 歷史의 資料이면 鄉謠界에 한 生光이 되리라 믿습니다.

推記

五子頌은 初章

花鳥歌는 中章

九九歌는 終章

檀紀四三一二二 己未正朔 權寧得記

擲 杞 頌

도頌

日月星辰	分明하니	天道가	의實하고
山川草木	分明하니	地道가	의實하고
仁義禮智	分明하니	人道가	의實하다

五十에	慕父母는	舜仁君의	孝道가
七十에	舞彩衣는	老來子의	孝道가
漁舟逐水	아니어든	武陵桃源	어이하며
之子于歸	아니어든	桃枝天天	무삼일고
七年大旱	아니어든	新髮新禱	무삼일고
九年洪水	아니어든	작산通道	무삼일고
孔孟의	貫一道는	聖言이	歷歷하다
關雲將의	行次던가	青龍刀는	무삼일고
西王母의	잔채던가	玉窓櫻桃	무삼일고
我阻東山	아니어든	蹊蹊不歸	무삼일고
桃枝天天	아니어든	其莢藁藁	무삼일고
尼丘山에	祈禱하사	孔夫子를	誕生하고
桑林野에	祈禱하사	七年大旱	비가왔네
道之云遠	아니어든	曷云能來	어이하며
周道如砥	아니어든	君子所履	어이되리
桃花細逐	楊花落은	떨어지는	景이되고
桃花能紅	李能白은	죄고붉은	景이로다
爲我하고	兼愛하니	楊墨의道	아니며
淸淨하고	寂滅하니	佛子의道	아니나
肉山하고	脯林하니	桀紂의	無道이고
焚書하고	坑儒하니	秦始皇이	不道로다
道中에	屬暮春은	故鄉生覺	절르나고
道傍에	一碣碑는	萬古貞節	可憐하다

개頤

이개작개	다비리고	柴門不正	逐恨개야
珊瑚高樹	六七尺은	寶貝차랑	玉粒로다
霜刃三尺	七首鉞은	決藪高風	荆軻로다
東門에	掛冠하고	瓢水에	洗耳하니
巢父許由	節介로다		
汨羅水	찬물결에	大夫를	水葬하니
屈三閭이	節介인가		
首陽山	殷고사려	飢腸을	제웠으니
伯夷叔齊	節介로다		

五斗祿	마다하고	栗里村	돌아들어
淸風北窓	閑暇한데	自謂羲皇	하였으니
陶處士의	節介		
諫議大夫	마다하고	富春山	돌아들어
桐江山	七星灘에	垂釣蒼波	하였으니
嚴子陵의	節介		
兩人對酌	山花개는	술이醉차	잠이오고
柴門不正	逐江개는	斗陵野老	草堂이라
菊爲重陽	冒雨개는	九月黃花	종거니와
萬戶千門	次第개는	一夜東風	더욱좋아
飛去飛來	落誰家是	날아가는	景이되
飛入尋常	百姓家是	날아드는	景이로다
百家詩書	貯一架는	萬卷書冊	종거니와
借得葵花	向一개는	白日忠誠	더욱좋아
雨中春水	萬人家는	時和歲豐	노래하고
春滿乾坤	福滿家是	萬人家의	立春이라
逢門今始	爲君개는	벗을만나	즐겁도다
花亦知音	近攜개는	반가울사	興을보고
天下能窮	力穡稼는	務茲稼穡	더욱좋아
好鳥迎春	歌後園은	노래歌字	종거니와
飛花送酒	舞前簷은	춤춤字	더욱좋아
菊花從次	不須開야	風生渡頭	錦鳳개야
白雲深處	有人家是	寒山石逕	찾아가고
燕南薊北	俠士들은	悲哀慷慨	노래한다
集字灌木	아니어든	其鳴啾啾	무삼일고
春日遲遲	아니어든	蒼棟啾啾	무삼일고
其側不遠	아니어든	伐柯伐柯	무삼일고
西施의	고은色度	秋波를	半開하고
釋迦如來	예쁜얼굴	朱唇을	半開하고
靑樓美色	고은態度	玉窓을	半開하고
枝枝擺出	玉芙蓉은	柯枝柯枝	芙蓉이요
葉葉長開	金芍藥은	잎잎이도	芍藥이라
胡山에	푸른풀은	王昭君의	節介
海上에	뜨는달은	魯仲連의	節介

三年을	不下樓는	文天祥의	節介
十年을	持漢節은	蘇子卿의	節介
花流女의	不更二夫	春香의	節介로다
暹暖隨堤	柳眼개는	亡國精神	可憐하다
이개저개	다버리고	梅花菊花	春秋개야

詩頌

豪傑豪傑	帝王門에	스승하니	
堯舜禹湯	豪傑이오		
道德門에	스승하니	孔孟顔曾	豪傑이라
辯士中에	出類하니	蘇秦張儀	豪傑이요
鳥獸中에	出類하니	鳳凰麒麟	豪傑이라
言語中에	出類하니	宰我子貢	豪傑이요
秋水共長	天一色은	滕王閣에	記錄하니
王子安의	豪傑이라		
知章騎馬	似乘船은	말갈하기	豪傑이요
乘肥馬	衣輕裘는	公西赤의	豪傑이라
牧羊村	離別하고	樓外青山	錢送하니
楚王孫心	豪傑이라		
楚滕府	兒女子로	邯鄲市에	買祿하니
平原君의	豪傑이라		
六出奇計	齊陳平은	參與吳한	三傑인가
願從赤松	張子房은	人間마다	豪傑이요
青泥坂	醉한술로	萬乘天子	부러하니
白衲僧의	豪傑이라		
善爲設辭	子夏子貢	言辭中에	豪傑이요
善言德行	閔子顔淵	德行中에	豪傑이요
玉缺이	無光하야	東城으로	돌아드니
范增이도	人傑인가		
縛蒲一擲	百萬金은	劉縯三의	豪傑이요
無田甫田	아니어든	蘿藦傑傑	무삼일고
鱸鮑潑潑	아니어든	葭茶偶偶	무삼일고
伯兮仡仡	아니어든	邦之傑兮	무삼일고
菊萄酒를	醉케 먹고	江에달을	건지다가

騎鯨上天	하였으니	李太白의	豪傑이요
萬里長城	진담안에	阿房宮	높히짓고
六國諸侯	朝會받오	三千宮女	侍衛하니
秦始皇의	豪傑이요		
鴻門宴	큰잔채에	排闥直入	하였으니
樊將軍의	豪傑이라		
華容道	좁은길에	義釋曹操	하였으니
關雲將의	豪傑이요		
博浪沙	너른들에	鐵椎를	높히들고
指點始皇	하였으니	滄海力士	豪傑이라
八千兵	홀어불고	烏江에	빠졌으니
項王도	豪傑인가		
幣縕袍	먼저입고	衣狐貉를	不耻하니
季子路의	豪傑이요		
天下一色	卓文君은	梁園席	좋은잔채
鳳凰曲을	和答하니	司馬長卿	豪傑이라
醉過揚州	하을적에	黃橘이	滿車하니
杜牧之	豪傑이라		
天下文章	三父子로	千秋史에	題名하니
蘇老泉의	豪傑이다		
天下壯士	四父子로	萬里橋에	齊名하니
孫討憲의	豪傑이다		
南屏山	殺氣中에	長鎗을	높히들고
左衝右突	하였으니	趙子龍의	豪傑이라
旗亭에	爭甲乙은	妙技가	唱歌하니
王羲之의	豪傑이요		
豐沛에	劉郎이는	大醉할새	豪義이라
東江에	項籍이는	渡江할때	豪傑이요
雍閭에	翟吏部는	술잔먹기	호걸이라
市上에	子仲子는	춤잘추기	豪傑이요
携妓東山	謝安이는	宰相中에	豪傑이라
惟醉黃樓	李青蓮은	文士中에	豪傑이요
顧托喬木	紅拂妓는	娼女中에	豪傑이라
銅雀台	脫錦袍는	虎痴가	躍馬하니

曹孟德의	豪傑이요		
豪傑이라	豪傑이라	萬古豪傑	여기있도다

육頌

늑으신	늑으신	卓文君이	늑으신가
白頭吟	무삼일고		
高堂明鏡	아니어든	悲白髮은	무삼일고
黃染輕烟	柳色新은	누른것을	물들이고
白留殘	雪梅花는	흰白字	머물었네
白鶴의	飛上天은	두나래	펼쳐들고
白鷺의	捲一足은	한다리로	성큼성큼
白虹이	貫日하니	燕人이	畏之하고
白馬로	朝周하니	箕子洪範	게아니나
青春作伴	아니어든	白首放歌	무삼일고
牧野征伐	아니어든	白魚登舟	무삼일고
秋深橘樹	金千片은	榴子빛이	黃金이요
風打蘆花	雪一場은	갈꽃이	白雪이라
白帝城中	雲出門은	踪跡이	杳茫하고
素月樓台	無出容은	月光이	傷心이라
野有死麋	아니어든	白茅苞之	무삼일고
野有生藟	아니어든	白帝敦東	무삼일고
空谷生藟	아니어든	皎皎白駒	무삼일고
劉玄德이	와계신가	南陽草堂	風雪中에
白鶴이	指路로다		
白羽扇	妙한法에	三分天下	하엿고나
白樂天	좋은글이	勸課農桑	하단말가
唐代文章	찾아가니	李太白이	살아있고
越女西施	보러가니	天下白이	여기왔네
三山半落	青天外는	푸른靑字	좋거니와
二水中分	白鷺洲는	흰白字	더욱좋다
朝庭有道	靑雲深은	푸른것이	구름이오
閭巷無事	白日長은	흰것이	햇빛이라
鳴鳩乳燕	靑春飛는	푸른靑字	던져두고
落花遊綠	白日長은	흰白字	가적오세

霜空碧梧	白鶴樓는	碧梧桐	푸른가지
白鳥鶴鶴	길들이고	白者未白	紅未紅은
紅桃花	붉은겉에	白花紛紛	더욱좋다
黃鳥時兼	白鳥飛는	集于灌木	좋거니와
白鳥鶴鶴	더욱좋다		
桃花絢逐	楊花落은	武陵春色	좋거니와
柳絮片片	더욱좋다		
三千世界	銀成色	琉璃世界	좋거니와
十二樓台	玉作層은	白玉樓台	더욱좋다
梨花一枝	春帶雨는	배꽃이	비를머고
笑指芦花	月一船은	강꽃이	白雪이라
白馬嚼齧	黃金勒은	兩色이	玲瓏하고
白雲深處	有人家是	山路도	崎嶇하다
冬嶺에	秀孤松은	獨秀蒼蒼	좋거니와
秋月이	楊明輝는	月色皎皎	더욱좋아
越榮氏	朝貢할때	獻白雉는	무삼일고
十萬降兵	野流血은	피血字	내사싫다
鴻門玉斗	紛如雪은	눈雪字	더욱좋아
微月樓台	下西嶺은	月光이	傷心이라
白日이	依山盡은	日色이	將暮하고
白頭에	宮子는	往事를	싫어한다
天寒에	白屋貧은	生涯가	淡泊하고
白髮이	隨綠落은	年光이	衰老로다
舜仁君이	崩하신가	蒼梧山에	눈이왔네
娥皇女英	崩하신가	黃陵廟에	粉칠했네
關雲將이	崩하신가	白衣白馬	무삼일고
棘入變藥	아니어든	素冠素輿	무삼일고
白日無光	哭聲高는	離情이	可憐하고
白日長思	工夫兒는	悲懷가	罔極하다
白日에	懸高名은	富貴功名	좋거니와
白首로	愁相語는	無情歲月	可憐하다

모頌

肅德宗 佳月宴에 獻壽하던 孫叔모야

周穆王	瑤池宴에	獻桃하던	西王모야
依江楠樹	草堂前에	捲我屋上	三重모나
紙上于今	遺鳳모는	杜陵野路	清篇이요
三分割據	宇宙策과	萬古雲霄	一羽모는
諸葛亮의	忠節이요		
泰山輕如	一鴻모는	爲國忠臣	게아니나
楊州에	拔一모는	聖賢이	不聽하고
始皇의	牛毛政은	百姓이	怨望이라
其側不遠	아니어든	伐柯伐柯	무삼일고
昭苦後帝	아니어든	敢用茲牝	무삼일고
이모저모	다버리고	毛瀨傳	용한글이
八大家에	第一이요		
毛遂가	白薦하니	十九人이	第一이라
暮容垂가	陣을치니	燕軍이	大敗모다
五月渡瀘	諸葛亮을	深入不모	하단말가
十年持節	蘇子卿은	翬雪啖毛	하단말가
雪滿長空	鶴頂紅은	눈가운데	鶴이날고
萬綠叢中	一點紅은	꽃가운데	꽃이되네
王昭君	胡沙塚은	栢樹木도	종거니와
楊太眞	華清池에	붉은蓮葉	더욱좋아
三更樓上	夕陽紅은	엷게붉어	못쓸래라
桃花一枝	落來紅은	적게붉어	못쓸래라
霜葉紅於	二月紅은	과히붉어	못쓸래라
萬紫千紅	摠은春은	一色으로	붉어있네
近市清烟	翠且重은	暮烟이	푸르렀고
孤城返照	紅將劍은	夕陽이	붉었고나
風清月白	三年弄은	흰白字	종거니와
綠暗紅深	海一盃는	붉을紅字	더욱좋아
瀟湘斑竹	血流痕은	哀怨이	懷涼하고
牧野征伐	血漂杵는	人命이	可憐하다
땃단말가	땃단말가	秦始皇	阿房宮이
석달열흘	땃단말가		
웃단말가	웃단말가	泰山에	大夫松이
武陵紅桃	웃단말가		

孔門弟子	찾아가니	孔西赤이	간대없고
絶代佳人	찾아가니	胭脂紅이	살아있네
蕪菱亭	豆粥을랑	불다하고	좋아하며
滹沱河	麥飯을랑	검다하고	싫다하네
紅門玉斗	粉如雪은	눈雪字	좋거니와
十萬降兵	夜流血은	피血字	더욱좋아
鶴田赤城	아니어든	雁門紫色	무삼일고
其側不遠	아니어든	伐柯伐柯	무삼일고
楊貴妃의	예쁜얼굴	海棠花가	잠을자고
西施의	고운姿態	赤芍藥이	半만피네
夕陽에	붉은노을	孤鶯과	같이날고
九臯에	우는鶴이	丹砂로	이마했네
窓밖에	櫻桃花는	오록쫘룩	붙어있고
설위에	牧丹花는	너풀너풀	붙었도다
柳市에	鶯歌綠은	푸른것을	노래하고
花房에	蝶舞紅은	붉은것을	춤추네
天上碧桃	親結子는	복숭아가	열매맺고
月中丹桂	又生枝는	桂樹에	꽃이렸네
沙上草閣	柳新暗은	푸는머리	내사슴다
城邊野池	蓮欲紅은	붉은蓮꽃	꺾어오세
母別子	子別母는	悲懷가	悶極하다
玆鳥玆鳥	失其母는	反哺心이	제아니냐
秋水共長	天一色은	푸른빛이	한결같고
落霞與孤鶯齊飛는		붉은빛이	한결같다
大澤邊	斬蛇日에	白帝子가	웃단말가
芒碭山	五彩雲에	赤帝가	웃단말가
沙村白雪	仍含冬은	白雪寒風	未謝하고
江縣紅梅	已放春은	萬和芳暢	새롭도다
舍風翠壁	孤雲袖는	重重蒼壁	푸르렀고
背日丹楓	萬本凋는	錦繡山光	더욱좋다
五更漏聲	催曉箭은	五更待漏	제아니냐
九重春色	醉仙花는	仙李春風	더욱좋다
富貴春	花雨紅은	泰平時節	氣像이요
西蜀櫻桃	也自紅은	錦江春色	붙었도다

楊柳紉紉綠은		실실히	푸르렀다
桃花點點紅은		點點히	붉어있고
太眞의	예쁜얼굴	海棠花	감을자고
王昭君의	예쁜얼굴	丹鳳門	下直하네
楚山仙女	고은얼굴	胭脂紅을	丹粧했네

花鳥歌

正二三月	돌아들어	花信風	늦지몰어
萬花芳暢	다피었다		
三等土階	堯仁君은	八元八凱	다스리고
南風詩	五絃琴은	解吾民之溫兮	하신
君王富貴	牧丹花		
首陽山	月輝中에	張巡許遠	몸이되어
泰山같이	굳은節介	喋喝號令하니	
殉國忠臣	向日花		
潯陽處士	陶淵明이	五斗祿	마다하고
田園으로	돌아들어	靑風北窓	閑暇하되
自謂羲皇	하였으니	隱逸風度	菊花
五陵仲子	正二月이	머리위에	пах아있고
王子安의	맑은淸風	뱃속에	불었으니
恨死淸紅	梅花		
六國風塵	商山四皓	九絕葛布	몸에입고
靑藜杖	비껴놓고	石榻위에	잠이드니
老人髣髴	박꽃이더		
二十歲	陞將軍이	白首其人	느지만나
漢나라를	中興하고	丞相印綬	받았으니
靑春少年	雪竹花		
月無窮	周濂溪는	程朱의	벗이되어
太極圖를	熟論하니	君子氣像	蓮花
西施같은	妙한色度	玉樓紗窓	비껴앉아
黃昏白馬	遊冶郎을	秋波들어	送情하니
娼妓같은	海棠花		
仙風道骨	謝安石은	絶代佳人	손목잡고
東山위에	을랐으니	風流郎의	碧桃花

借問酒家	何處在는	牧童遙指	吉花
渭城朝雨	浥輕塵하니	客舍青青	버들花
三層台	거룩場에	半白半紅	鳳仙花
疑是昨夜開	하니	아지 못한	梨花
萬木青山	落葉中에	碧山秋葉	菊菊花
冬至 첫날	雪寒風에	흔날리는	六花
四節花草	다피었다		
또한편	바라보니		
弱水三千	瑤池宴에	消息傳한	靑鳥새
綠水芙蓉	雲霧屏에	그림속에	孔雀새
歸蜀道	帝子園에	啼夜三更	杜鵑새
七七佳期	銀河水에	다리놓은	鳥鵲이여
綠楊雙雙	북이되어	봄빛 찾는	피꼬리
一雙飛去	落花頭하니	願不相離	鴛鴦새
玉窓明月	淸風夜에	말갈하는	앵무새
丹山梧桐	늘어진가지	길들이는	鳳凰새
夕陽微歎	靑山色하니	相歸相望	海오리
上林苑에	글傳하던	返妻歸來	기러기여
碧霄雲間	萬壑上에	雄壯하다	외가리여
人間離別	萬事中에	獨宿空房	寤寐不忘
寡婦새여	또저	鰥夫새	거동봐라
春興을	못이겨	거울거울	發狂하네
山林飛鳥	못새들은	時節노래	울음울고
孫興公	山水賦를	목내어	길게울고
斜陽石逕	돌아드니	偷看하는	범나비는
나를보고	반기는듯	너풀너풀	춤추네
介子推의	맑은魂은	寒食으로	吊喪하고
王羲之의	蘭亭宴은	流觴曲水	뿐이더라
杜子美	一去後에	西蜀이	寂寞하야
花鳥歌	임자없어	東絕없이	되었네

九九歌

九九八十一	狂老는	呂童賓	찾아가고
八九七十二	謫仙은	采石江에	달전지교

14 嶺南語文學(第8輯)

七九六十三	老董公	漢沛公을	찾아가고
六九五十四	皓先生	商山에	바둑두고
五九四十五	子胥는	東門에	掛冠하고
四九三十六	觀大師	八仙女를	戲弄하네
三九二十七	德舞는	唐太宗의	風樂이오
二九十八八	陣圖는	諸葛亮의	陣法이라
一九九九	宮數는	河圖洛書	理數로다

松波 權寧得記